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보도자료			
	보 도	2024. 4. 17.(수)	배 포 일	2024. 4. 17.(수)
담당부서	경영혁신부	부 장 김진건 (051-647-9052) 매니저 김태훈 (051-647-9050)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9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최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원장 이명호)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의 해양금융 및 디지털금융의 해외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9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을 개최했다.

< 제9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요 >

- 주관 :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 일시/장소 : 2024. 4. 17.(수) 14:00~17:00 / 한국에탁결제원 대회의실(BIFC 39층)
-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사원기관(부산광역시·한국거래소·한국에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BNK부산은행·기술보증기금) 실무 전문가, 학계 및 업계 인사 20인 내외
- 주제 발표 : ①해양금융의 현황과 과제(이기환/윤희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②선진 디지털 자본시장의 변화(김홍배 동서대학교 교수), ③디지털금융의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장우 부산대학교 교수)

-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과제를 재정립하고 체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에는 행정 및 감독기관과 각계의 전문가가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금번 제9회* 포럼에는 주로 금융산업 규제 개선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3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 2022년부터 매 분기 개최하여, 9회차를 맞음

-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윤희성 교수가 ‘해양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고, 동서대학교 김홍배 교수가 ‘선진 디지털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고, 부산대학교 이장우 교수가 ‘디지털 금융의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발제한 후, 박병원 前은행연합회 회장의 주재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환/윤희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양금융시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해양금융의 관점에서 부산금융중심지의 과제 해운기업 및 금융기관 유치, 스타트업 육성, 탈규제Push, 인센티브개발, 융복합인재양성 등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홍배 동서대학교 교수는 “선진국 블록체인 분산 원장에 기반한 기반한 전통금융자산의 자본시장 혁신이 필요하며, 부산은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이에 맞추어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장우 부산대학교 교수는 “금융시장과 금융자산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한 혁신의 과정인 만큼, 뒤처지면 커다란 대가를 피할 수 없으므로, 투명하고 완결성이 높고, 효율적이며, 투자자보호에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하여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되돌아보고,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처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경영혁신부 김진건 경영혁신부장

Tel : 051-647-9052 E-mail : jgkim@kbfc.or.kr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bfc.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제9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사진

